

작년 전남 어가 평균소득 4900만원

전남지역 어가 소득이 5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의 '2017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어가 평균소득이 4902만 원을 기록, 전년(4708만 원)보다 4.1% 늘었다. 연도별 어가 평균소득은 2013년 3859만 원, 2014년 4101만 원, 2015년 4389만 원이다. 어가 평균 자산도 4억 3723만 원으로 전년(4억 896만 원)보다 6.9% 증가했다. 어업 형태별로는 양식어가 평균 소득이 7750만 원으로 어로어가 평

전남도, 통계청 2017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양식어가 7750만원...어로어가 2배 높아

균소득 3812만 원보다 2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어로어가는 1.8% 증가한 반면, 양식어가는 7.9% 증가했다. 특히 양식어가의 지난해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5869만 원)보다 1.3배 높았다. 이는 지난해 해양수산부 어

류와 해조류 양식 소득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영주 연령별로는 40대 이하 경영주의 어가소득이 1억 2139만 원, 자산은 7억 2842만 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과 자산이 가장 높았다. 전남지역 40대 이하 어가경영주 비중은 15.0%로 전국 수치인 10.2%

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어가소득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40대 이하 어가경영주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로, 전남도가 어촌의 청년 유입을 위해 펼친 다양한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청정해역 전남의 수산물 가치를 높여 어업인 소득이 더욱 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귀어정책 및 청년 창업 지원으로 많은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오비맥주, 러시아월드컵 마케팅 시동

'뒤집어버려' 주제 로고 뒤집고 740ml 대용량 캔 출시



뒤집었으면 한다는 염원도 담았다. 암울한 현실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좌절하지 않고 부딪쳐보자는 도전정신도 함께 담았다는 것이다. 오비맥주는 이 같은 '뒤집어버려'라는 메시지를 담은 가스 후레쉬 월드컵 스페셜 패키지도 새로 선보인다. 월드컵 패키지는 주제에 맞게 카스 대용량 캔제품도 새로 선보인다. 오비맥주는 26일 서울 중구 반안트리클럽앤스파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공식 맥주인 카스를 앞세운 이 같은 월드컵 마케팅 계획을 밝혔다. 오비맥주는 카스 월드컵 마케팅의 큰 주제를 '뒤집어버려'로 정했다. '일의 차례나 승부를 바꾼다'는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틀에 박힌 사고와 '안 된다'는 생각을 뒤집어 보자는 취지라는 게 오비맥주의 설명이다. 축구대표팀이 비록 FIFA 랭킹 하위권에 머물며 약체로 평가받고 있지만 월드컵 본선의 판도를

같은 '뒤집어버려'라는 메시지를 담은 가스 후레쉬 월드컵 스페셜 패키지도 새로 선보인다. 월드컵 패키지는 주제에 맞게 카스 대용량 캔제품도 새로 선보인다. 오비맥주는 26일 서울 중구 반안트리클럽앤스파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공식 맥주인 카스를 앞세운 이 같은 월드컵 마케팅 계획을 밝혔다. 오비맥주는 카스 월드컵 마케팅의 큰 주제를 '뒤집어버려'로 정했다. '일의 차례나 승부를 바꾼다'는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틀에 박힌 사고와 '안 된다'는 생각을 뒤집어 보자는 취지라는 게 오비맥주의 설명이다. 축구대표팀이 비록 FIFA 랭킹 하위권에 머물며 약체로 평가받고 있지만 월드컵 본선의 판도를



2019년형 쏘렌토 '더 마스터' 본격 판매

기아차, 첨단·편의사양 대폭 제고...강화된 유로6 기준도 충족

기아자동차가 대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쏘렌토의 2019년형 모델인 '더 마스터'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쏘렌토 더 마스터는 기존 R 2.2 디젤과 2.0 가솔린 터보 모델에 적용됐던 8단자동변속기를 R 2.0 디젤 모델까지 확대 적용해 전 모델 8단 자동변속기를 기본 장착하고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을 통해 최고의 주행성능을 확보했다.

전문 8단 자동변속기는 부드러운 변속감과 우수한 전달효율 뿐 아니라 저단 영역에서는 발전 및 가속 성능이 향상되고 고단 영역에서는 연비 향상 및 정숙한 주행감을 실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아차는 쏘렌토 더 마스터의 R2.0과 R2.2디젤 엔진에 배기가스 내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저감에 효과적인 요소수 방식을 적용한 SCR 시스템을 적용해 강화된 유로6 기준을 충족시켰다. 요소수를 분사해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후처리 시스템이다.

첨단사양도 대폭 강화됐다. 고속도로 주행보조(HDA), 추방 충돌방지보조(BCA), 후방교차 충돌방지보조(RCCA), 전방 충돌방지보조(FCA) 등이 적용됐다.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고속도로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DBC),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 '카카오아이' 등 편의사양도 장착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중형 SUV 대표 모델인 쏘렌토의 명성에 부응하고자 브랜드 자산인 견고하고 역동적인 상품성을 강화한 2019년형 쏘렌토 더 마스터"를 출시했다며 "주행성능 및 신기술 등 상품성을 강화하면서도 가격 인상폭은 최소화해 고객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가격은 ▲2.0 디젤 모델은 2840~3680만원 ▲2.2 디젤 모델은 2895~3635만원 ▲2.0 터보 가솔린 모델은 2815~3065만원이다. 뉴시스

정부, 저축은행 '고금리 장사' 제동

예대출 규제

정부가 고금리 대출 등 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예대출 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2019년까지 유예 기간을 둔 뒤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업 예대출(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평균 예대출은 2009~2010년 80% 수준이었지만 2012년 구조조정 사태 등으로 75.2%까지 하락한 뒤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100.1%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2~2014년 구조조정기 이후 영업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예금에 비해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 최근 예대출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가계대출 증가가 대출 증가의 주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폭도 커지는 추세다.

광주농협, 오늘 수완동에 금요직거래장터 개장

500여개 농산물 10~30% 할인

농협광주본부부는 광주지역 우수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광주시민들의 알뜰한 장바구니를 위한 금요직거래장터를 수완동주민센터 앞에서 27일 개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매주 금요일 문을 여는 장터는 광주지역 14개 지역농협의 조합원들이 생산한 50여개의 우수 농산물을 시중가 보다 최고 10~30% 저렴

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일수 광주본부장은 "광주 시민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다양한 한지역 우수 농산물을 유통비용 절감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장식날에는 장터를 찾은 고객들에게 광주쌀 홍보를 위해 소포장 쌀을 무료로 증정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임형택 기자

개별 저축은행의 예대출도 전반적으로 상승, 지난해 예대출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곳이며 120%를 초과한 저축은행도 3개나 됐다. 당국은 건전성 악화 방지, 대출 증가 관리, 업권간 형평성 등을 위해 예대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예대출을 상정할 때 대출금에서 사잇물, 햇살론 등 정책상품은 제외하고 고금리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일단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2020년 110%, 2021년 100%로 규제 비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2020년 말까지 2~5개 저축은행에 200억~2000억원 수준의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현재 예대출 100%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과도한 대출 확대가 제한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국은 내달 초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 신제품 '필라이트 후레쉬' 판매



하이트진로가 맥주 브랜드 필라이트의 신제품 '필라이트 후레쉬' 판매를 시작한다. 하이트진로는 26일 오전 홍천공장에서 '필라이트 후레쉬'의 출고기념식을 열고 첫 제품 출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인규 사장을 포함해 임원들과 공장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초기 출고 물량은 40만 상자로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첫 선을 보인 필라이트는 제품력과 가성비로 내세워 출시 1년 만에 2억캔을 판매

하면서 시장에 안착했다. 하이트진로는 이 같은 분위기에 이어 국내 발포주 시장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필라이트 후레쉬를 새로 출시했다. 필라이트 후레쉬는 100% 국산보리를 사용하고 하이트진로의 프레스 저온숙성공법을 통해 시원하고 상쾌한 맛을 끌어올린 라거 맥주다. 홈 배합을 최적화하고 향과 잔미를 최소화해 깔끔한 목넘김을 구현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알코올 도수는 4.5도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비자 접점에서 음용 기회를 확대하고 필라이트 브랜드만의 젊고 세련된 감각의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 매가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